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동화)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동화)
- 회의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5:00~16:07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송수연, 최형미, 홍명진 심의위원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 활동 및 문학 현장에서의 후속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사업보다 지원금 규모가 두 배에 달하는 사업이 신설돼 작가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심의위원 일동은 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심의의 결과가 좋은 선례가 됨은 물론 나아가 이 지원사업이 작가들이 창작 지지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발간지원사업과 달리 문학 생태계 전반으로 작가의 창작 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를 확장하는 사후 집중 지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작가 강연이나 수동적 활동보다는 다양한 예술 플랫폼을 자신의 작품과 접목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활동 계획의 적절성과 기대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의위원들이 고심했던 것은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의 준거 때문이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작가들의 출간 작품과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 역량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심의 방식이라 심의 요건 하나하나에 많은 고민을 기울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지원서를 비롯한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읽고 평가했으며,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대면 심의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중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원서를 준비한 작가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열띤 토론 심사 끝에 1차 심의에서는 10편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문학이 문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변화를 외치고 융합을 강조하는 요즘, 문학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문학 다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의 수월성을 놓지 않는 기관으로 남길 바란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전해봅니다.

심의위원 일동